



승모(崇慕)하여 그곳에 도고산 서원을 창건(創建)하고 포저(浦渚)와 치곡을 봉안하고 수백 년간 봄·가을로 봉형사(奉享祀)하더니 고종때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을 내려 철폐되었다. 「이제 다만 유허(遺墟)에 잔초파체(殘礎破疲)만 남았으니 사고항순(四顧荒淳)에 물을 곳 없어 애석(哀惜)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포저(浦渚)는 유현(儒賢)에 있고 치곡은 학행(學行)에 있다.」는 전설이 있다.

<조사당시 도산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느랭이 마을은 위도 36-43-30, 경도 126-54-2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고온천의 좌측으로 들어가면 농은리에 이르기 전에 있는 마을로 도고산 아래에 위치한다.

도촌마을은 10번 국도를 따라서 농은리 이르기 전에 느랭이 마을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예산군과 경계에 이른다.

### 2) 현황

느랭이 마을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102명으로 33가구가 살고 있으며, 주민들의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2%는 축산업에 종사한다.

도촌 마을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215명으로 56가구가 살고 있으며, 주민들의 97.4%가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2.4%는 축산업에 종사한다.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느랭이 마을	102명	48명	54명
도촌 마을	215명	107명	108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느랭이 마을	100%	98%	2%
도촌 마을	100%	97.6%	2.4%

느랭이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 9.6ha, 밭 15.3ha로 논보다 밭농사가 훨씬 많으며, 도촌 마을에 비해 농경지가 매우 적고,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앰프 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가 있으며, 농약기구들도 비치되어 있다.

도촌마을은 논이 34.4ha, 밭 25ha로 농기계 현황을 보면 경운기가 가장 많으며, 각종 다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앰프 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와 농약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느랭이 마을	24.9ha	9.6ha	15.3ha
도촌 마을	59.4ha	34.4ha	25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느랭이 마을	1개소	1개소	-
도촌 마을	1개소	1개소	-

느랭이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70%로 가장 많으며, 신씨 3%, 윤씨 3%, 홍씨 3%로 조사되었고, 연령층은 40~60대가 가장 많다.

도촌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이씨 23%로 가장 많으며, 박씨 13%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신씨	윤씨	홍씨	이씨	박씨	기타성씨
느랭이 마을	33호	23호	1호	1호	1호	-	-	7호
도촌 마을	56호	4호	-	2호	-	13호	7호	30호

- 최고령자

느랭이 마을의 최고령자는 현용순씨로 92세이시며, 건강하신 편이며, 도촌 마을은 이 정준씨가 92세로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

느랭이 마을은 크고 작은 여러개의 산으로 덮혀 있으며, 도고산은 느랭이 동서쪽에 있는 산이고, 산세가 험준하다. 도고산의 주봉은 국사봉이고, 연봉으로 칼바위봉이 있고, 질마재는 느랭이에게 예산 간양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고 두부재는 느랭이 고개가 있어 마을의 전체를 둘러 싸고 있으며, 도산 소류지가 있는데 도산리에 있는 만수량이 51천톤인 저

수지이며, 도고산 산신령을 모시는 산제당이 있으며, 옛절터가 남아 있고, 불당골은 운주사가 있는 곳이며, 대양골은 느랭이 북쪽에 있는 골이다.

도촌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에는 도고산과 부영산이 있다. 도고산을 느랭이 동서쪽에 있는 산으로서 높이가 450m이며, 산세가 험준하며, 주봉은 국사봉이고 산의 높기로 유명하다. 부영산은 노루목 북쪽에 있는 산으로 도산리에서 신유리로 넘어가는 고개로는 노루목 고개가 있고 노루목 고개 맞은편에는 마을을 타고 흐르는 도고 저수지가 있고 개울로는 한내 개울이 있다. 한내 개울은 도고천의 중상류로서 대천리와 도촌, 새말, 누루목을 끼고 돌아 도고 저수지에 유입된다.

#### 4) 마을변천과정

느랭이 마을과 도촌 마을은 본래 신창군 남성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느랭이, 도산리, 정촌, 점촌과 도촌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도산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 5) 입 향

느랭이 마을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사람은 성씨는 금령 김씨들이며, 그후 창원 성씨, 윤씨등의 차례로 터를 잡았으며, 아직까지도 매년 금령 김씨들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며 춘추제향을 올린다.

도촌마을의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사람은 금령 김씨로 현재는 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일제시대에서 6.25동란 전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근처에 퍼져 있는 8개 마을이 모두 합심으로 살아가고 금령 김씨들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춘추제향을 올린다.

#### 6) 지 명

十 느랭이 마을의 지명

·느랭이 (어랑촌) : 도고산 기슭에 자리잡고, 노루목의 안쪽 마을이 됨. 고려말 소부소감을 지낸 송암공이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켜 앞에 흐르는 한내에서 고기를 잡아 세월을 보냈다 하여 어랑촌이라고도 함.

·도고산 : 동서쪽에 있는 산. 높이 450m로 산세가 험하다. 주봉이 국사봉이고, 연봉으로 칼바위 봉이 있음.

·질마재 : 느랭이에서 예산 간양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질마처럼 생겼다하여 질마재라 함.

·두부재 : 느랭이 마을 전체를 둘러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매봉재 : 도고산 주봉인 국사봉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으로 매의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임.

·섬깃재 : 송암공 김질의 불사이군의 절의를 기리는 재라 하여 섬깃재라 함.

·절골 : 도고산 산신령을 모시는 산제당이 있고 옛 절터도 있음.

·불당골 : 운주사가 있는 골.

·대양골 : 느랭이 북쪽에 있는 골.

·버선골 : 불당골 옆에 있는 골. 버선같이 생겼다 함.

·도산 소류지 : 도산리에 있는 만수량이 51천톤인 소류지.

·효자정문 : 느랭이에 있는 효자 예조판서 김 익생의 정문.

·도산사 : 김녕김씨 시조 문영공을 뒀신 사당임. 춘추제향을 올리고 있음.

·진주목사 공덕비 : 정조조에 병조참의 진주목사를 지낸 김 정국의 송덕비.

·운주사 : 도고산 불당골에 있는 조계종 말사로서 왜정 시대 헐렸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복원함.

·봉수 : 도고산 주봉인 국사봉에 있음. 3.1 운동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고 함.

·칼바위 : 칼모양 처럼 생겼다 하여 칼바위라 함.

·양산골 : 양산처럼 생겼으며, 오후 3시 반이면 그들이 진다하여 양산골이라 함.

#### 十 점촌 마을의 지명

- 노루목 : 도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의 모양이 노루의 목과 같이 생기었음.
- 새말 : 노루목 옆 동쪽에 새로 된 마을.
- 노루목 고개 : 도산리에서 신유리로 넘어가는 고개.
- 정촌 : 노루목 옆에 있는 마을. 옛날에 정이 있었음.
- 한내개울 : 도고천의 중상류로서 대천리와 정촌, 새말, 노루목을 끼고 돌아 도고저수지에 유입되는 내임.
- 도촌 : 느령이 북동쪽에 있는 마을. 산자락에 붙은 마을이라 하여 도촌이라 함.
- 영천부원군 신도비 : 이조의 공조 참의 공주목사 그리고 영천 부원군에 봉하고 우의정(右議政에 추정) 됨.

#### 7) 전 설

##### 十 도촌마을의 전설

금령 금씨의 7대 후손이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위독해진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배 하나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다. 배밭은 도고산 너머에 있었고 450m 되는 도고산을 어린 손자는 한걸음 한걸음 걸어서 넘어야만 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가만히 앉으며 손자에게 등에 타라고 했다. 손자는 호랑이의 등에 앉아 산을 넘을 수 있었다. 드디어 손자는 호랑이의 덕으로 배 밭에서 배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손자를 등에 태워 주었다. 그렇게 도고산을 넘어온 손자는 배즙을 내어 할아버지께 드렸고 할아버지는 그 배즙을 드시고 병이 완쾌되어 더 살았다고 한다.

##### 十 포저 조익선생의 효에 대한 일화

지금 소개할 일화는 포저 조 익이 벼슬에 올라 한양에 있을 때의 일이다. 5남 1녀의 자녀를 둔 조 익 선생의 맨 큰 아들을 혼인시켰다. 큰 경사를 치루느라 온 집안 식솔들이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했다. 특히 조 익 선생의 모친은 큰 손자를 장가들인다는 기쁨에 제일 앞장서서 잔치를 준비했던 것이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지라 잔치가 끝난후 조 익 선생의 모친은 그만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님. 의원이 왔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실 겁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조 익 선생은 주름살이 잡혀 더욱 험칙해 보이는 노모의 얼굴을 지그시 내려다 보며 안스러움을 어찌할 줄 몰라했다. 모친의 손목을 쥐고 진맥을 하던 의원은 눈을 감춘 채 고개를 이리 가우뚱 저리 가우뚱하였다. 그리고는 조 익 선생을 바라보며, "잠깐 나오실까요?" 의원을 따라 나온 조 익 선생은 손을 부벼대며 안절부절이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 장안의 웬만한 병은 다 고쳐 봤습니다. 그런데 모친의 병은 병명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리 신열이 오르고 가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관지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수족이 찬 것은 아무리해도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나은 의원에게 보이심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후 조 익 선생은 내놓아라 하는 명의들에게 모친의 병세를 보였으나 아무도 그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조 익 선생은 "내 효가 부족함으로다"하며 괴로워 했다. 모친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조공을 만나야겠소. 가뜩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어 난리인데 당신같은 돌중이 뭘 안다고 우리 대감마님을 만난다는 거요? 어서 나가시오" "내 아무리 돌중이기로 서니 대감마님께 실수할까 보냐?" "에잉 술 먹는 중이 중이요.?" 이때 조 익 선생은 대청 마루에 들어서서 "어허! 왜 이리도 소란스러우냐?": 중놈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은 얼른 손을 들어 합장하고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승이 대감께 필히 아뢰울 말씀이 있기에 이리 찾아 뵈었습니다. " 비록 장삼은 허름하고 옷 매무새가 동네 망나니인 양 싶을 정도이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다. 조 익 선생은 큰 기침을 한 번 한후 "안으로 드시지요" "나리. 아니 되웁니다. 이 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돌파리 입니다요." 깜짝 놀란 중이 말리며 끼어 들었다.

"어허 시끄럽다. 내 집의 손님을 어찌 그리도 박대하느냐?" 어느새 대감과 스님은 방안에 앉았다.

"소승이 마을의 소문을 들었사온대 이 맥의 노마님께서 편찮으시다지요?"

"그렇소이다." " 대감께서도 효성이 또한 지극하시어 노마님의 병 구환을 손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 비록 뛰어난 신통력은 없으나 혹 대감께 도움이나 되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대감께서도 약간의 한방의학은 알고 계신다지요?"

" 부끄럽습니다. 약간은 알고 있으나...."

" 그러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사오나.... 노 마님의 소변의 맛보는 것이옵니다. 그 맛을 상세히 파악한 후 성밖에 사는 김의원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에 알맞은 한약을 지어 줄 것이옵니다. 그리 아시고 소승은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하고 중은 가버렸다.

조 익 선생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뿔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 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질 그릇에 담긴 소변맛을 본 후 조 익 선생은 성 밖에 사는 김의원에게 찾아가 한약을 지어 왔다.

그 한약을 먹은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하더니 마침내는 병석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 행사

느랭이 마을이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자유당 시절로 그 당시 60여가구가 느랭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전통놀이로는 풍물, 농악, 윷놀이 등이 있다. 그리고 도산사에 금령 김씨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는데, 도산사는 금령 김씨 시조 문영공을 모신 사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년 금령 김씨등의 후손들이 도산사에 모여 춘추제향을 올린다. 계모임으로 죽은 사람을 태우는 상폭계가 있으며, 마을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8개 마을이 학구당을 짜서 도산리 입구의 노인정에 모여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한다.

도촌 마을은 정월 초하룻날 도촌 사람들은 부영산에 모여 마을이 큰 불화 없이 무사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산제를 지내며, 그리고 그날은 비린 음식을 절대 금지하며, 계모임으로는 품앗이, 쌀계, 돈계등이 있으며 마을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주변에 퍼져 있는 8개 마을 모두가 도산1리에 있는 노인회관에 모여 합심으로 일을 처리하며, 금령 김씨들만의 제사가 있는데, 매년 금령 김씨의 후손들이 도산사 사당에 모여 조상을 기리는 춘추제향을 올린다.

###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켰던 송암공 김질과 포저 조익선생과 그리고 효자로 유명한 김익생 선생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十 김질(金秩: 고려): 자는 국상(國祥), 호는 송암(松庵), 본해, 김영군 시흥(始興)의 후예이다. 고려초에 벼슬이 소부 소감에 이르렀는데 이태조가 수선(受禪)하던 초기에 옛날의 신구의 정의(情誼)로서 원종공신으로 책록하고 예조판서의 벼슬을 주어 여러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마침내 향산에서 늙었고 그의 절개를 온전히 지키었다. 이 사실이 야사에 기록되어 전한다. 묘소는 아산군 도고면 도산리에 있는데 태조조에 윤음(綸音)을 내리고 도고상 일국(一局)에 碑 하사하여 예장하도록 명하였다. 碑碣이 있다. <朝鮮策輿勝覽>

十 김익생(金益生: 이조): 호는 雀齋, 본관은 김해, 김영군 시흥의 팔세손, 송암공 諱 秩의 자이다. 13세때에 親患이 있게 되어 오랫동안 病苦중 잉어 고기를 자시기를 원했으나 계절이 동지선달 酷寒인지라 얼음이 팡팡 얼어 구할 도리가 막연하던 중 꿈에 天使가 말하기를 孝誠이 至極하다며 연못을 일러 주면서 가보라는 것이었다. 희망에 차 새벽 4시에 그곳에 당도하니 얼음장이 갈라지며 길이 두자 세치 되는 잉어가 뛰어나와 잡아 가지고 집에 와서 정성껏 고아 드린 즉 병세는 호전되어 가는 중 또 배가 자시고 싶다하여 탈해사에 가서 구하려 할 때 大虎가 나타나 등에 얹혀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이 효성이 지극함을 나라에 상호하여 큰 상을 받고 효자로 선정되어 아산군 도고면 도산리에 旌門을 建立하게 되었다. 中樞 府使를 거쳐 태종조에 경주부윤이 되어 賔賢樓를 지어서 講武所로 사용하였는데 안평대군 瑤이 편액을 쓰고 鄭麟趾가 기문을 지었다. 治績이 있었고 벼슬은 禮曹判書에 이르렀다. <朝鮮策輿勝覽>

十 조익 : 포저 조익은 조선 선조 1579년에 공주 유구에서 출생했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으나 광해군때 정치가 어지러워 충남 아산의 신창으로 낙향했다. 그후 인조 반정때 다시 임금의 부르심으로 벼슬길에 올라 대사성 직제학겸 예문과 제학 이조·예조 판서라는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의 저서에는 문집 18권(일명 포저집) 유서 10권 연

보 2권 가례향 2권등이 있어 전해 내려오는데 그 모든 저서가 조 익 선생의 학식과 덕망을 말해 준다.

#### 10) 종교현황

느랭이 마을은 절이 있는데 운주사로 신도수가 50명이고, 교회는 없고 화천리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도촌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다.

#### 11) 공장현황

느랭이 마을에는 공장이 없으며, 도촌마을에는 동진식품 이란 식품가공업체로 공장이 1개 있다.

#### 12) 마을의 특성

느랭이 마을은 도고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해 대책용 도산 저수지가 있고, 김씨가 총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김씨 후손들이 모여 춘추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젓소, 사슴등 가축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목장들도 있지만, 주로 밭농사 위주이다. 또한 운주사 대웅전, 진주 목사 공덕비, 효자 정문등이 있으며, 도산서원이 있는데 도산 서원은

도촌 마을은 산자락에 붙은 마을로서 노루목이라는 고개가 있으며, 영천 부원군 신도비가 있고 수려한 도고산이 감싸고 있으며, 도고저수지가 있고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며,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시골 마을이다.